

전통시장 · 상점가 활성화 총력

전주시, 지원 사업 공모 7개 선정... 특성화시장 육성 ·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전주시가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인들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 소매를 걸어붙였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주관하는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7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3억4,000만원을 들여 전통시장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모래내시장과 신중앙시장, 중앙상가, 남부시장, 전북대학교 로상점가 등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장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모래내시장의 경우 오는 2022년 말까지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 시장 투어코

스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펼쳐진다. 세부적으로 수제맥주 브랜드나 비대면 장보기 사업 등을 발굴하거나 디지털인간관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실시된다.

신중앙시장과 중앙상가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새롭게 설치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 신중앙시장의 경우 아케이드 800m 구간에 증발방장치가 교체된다. 증발방장치는 안개처럼 작은 물방울을 공기 중에 분사해 대기온도를 3~4도 가량 낮춰 더위를 해소하고, 탈취와 해충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중앙상가에서는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와 함께 천장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설치한다.

남부시장과 전북대학교로상점가에서

는 상인회 자율적으로 상인교육과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시장 경영을 혁신하는 시장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전통시장의 경영 혁신을 돕고 시설 현대화에 앞장선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번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발 빠른 제설작업에 나선 전주시 전주시지역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7일 새벽 노송동 전주시청사 인근에서 청사 직원들이 지난 밤부터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 팔복동 대기환경 개선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전주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민, 민간환경단체,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민간환경감시단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당초 인근 주민들로부터 우려졌던 '신단 환경지킴이'가 확대돼

꾸러진다.

이 단체는 팔복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한 공업지역 주변을 7개 구역으로 나눠 주간과 야간은 물론이고 휴일 취약시간대까지 빈틈없는 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감시단은 ▲소각시설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감시 ▲폐기물 등 환경오염 감시 ▲악취 발생 및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불법 활동이 예측되는 사업장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동행해 시설의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젊은 농업인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27일까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13명 모집

전주시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을 농업인 13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들은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농과 가업 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들이 미래 주요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대해주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선정된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에게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지 구매 등의 용도로 정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정책자금 대출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특히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경력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매월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영농정착금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미만인 자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이면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신청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go.kr)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전주시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전문가 등이 참여한 딸기 농가 현장방문 컨설팅 모습>

서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면접평가와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유능한 젊은 예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위한 용자 사업 본격화

전주시-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증개기관 협약

전주시가 사회적까지 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지원한다.

시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최근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증개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해까지 조성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8억원과 증개기관의 자체자금 1억 6,000만원을 더해 총 9억 6,000만원을 기반으로 용자 사업을 하게 된다.

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용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자선화 사업은 3억원까지, 재생에너지사업은 약 2억원까지 연 2.5~3%의 고정금리로 용자해주게 된다.

용자 신청은 추후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진행하는 공모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063-213-2244) 및 방문(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 본관 6층) 상담과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된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 창출만이 아닌 상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며, 컨소시엄을 맺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1577-1295

전주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